



표지인물과의 만남-대한민국환경관리장 금강대장 수상자

삼성SDI(주) 부산사업장 환경안전그룹 김도철 차장



환경관리인에게 있어 최고의 상인 '대한민국환경관리장' 금강대장에 삼성SDI 부산사업장 경영지원팀 환경안전그룹 김도철 차장이 수상했다. 현재 울산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자, 철저한 환경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를 '표지인물과의 만남'에서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환경관리 할 터”



삼성SDI(주) 부산사업장 환경안전그룹 김도철 차장

▲환경관리인에 있어 최고 영예의 상인 '대한민국환경관리장' 금강대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수상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상은 우리 5만 전극환경관리인 회원 모두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대표로 받았다고 봅니다. 환경관리인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환경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TOP과 모든 임직원의 한결같은 환경사랑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환경관련 업무를 맡아오셨는데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중점을 두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환경관리인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환경관리의 기본은 선행관리입니다.

사전 문제를 예측하고 변환점 관리를 통한 원류관리만이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배출 "ZERO"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청정원료 대체 등 단계적 개선과 경비절감을 위한 SYSTEM 개선에 FOCUS를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환경관리업무 전체에 대한 팀웍 또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 삼성SDI(주)의 환경관리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1970년 설립된 삼성SDI는 칼라브라운관(CPT), 액정표시관(LCD), 형광표시관(VFD), 유기EL 및 PDP등 각종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종합 생산 메이커로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선언'을 토대로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과 공정개선으로 자연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투자와 SYSTEM에 의한 유기적인 관리로 국내최초 ISO 14001 획득과 PSM, LCA 추진 등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고 있습니다.

시설측면에서는 3단계 폐수처리시설과 2중 대기방지시설 및 자가매립장, 자체소각로를 갖추는 등 환경경영 인프라 역시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관리측면에서는 공사 및 화학물질 등 자체 사전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과 엄격한 사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법기준 대비 20% 이하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폐수방류수는 전량 인근지역 농업용수로 공급, 지역사회와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뭄에 큰 효과를 보았죠.

▲향후 사내 환경관리 계획이 있으시다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자재, 공법 및 4R(RECYCLE, REUSE, REFRAIN, REDUCE)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금까지는 "환경관리=비용의 지출"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환경관리가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즉 모든 환경비용의 투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환경기술개발을 유도하며, "환경관리=기업이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환경기준이 필요 없는 무방류·무오염 회사로 탈바꿈, 무공해 사업장으로 변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환경관리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SDI 입사당시 UTILITY(정수처리)와 인연이 되



표지인물과의 만남-대한민국환경관리장 금강대장 수상자

삼성SDI(주) 부산사업장 환경안전그룹 김도철 차장

어 '맑은 물 생산에 수반되는 폐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걸음마를 시작하여 환경설비는 물론 BOILER 등 모든 UTILITY 설비의 설계·시공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경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성SDI 전 폐수처리시설 및 대기방지시설 시공·감리를 계기로 1994년 멕시코 현지 공장건설 요원으로 파견되어 미국 등 선진기술을 습득, 1996년 현업에 복귀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공학이나 유

전공학보다도 한 차원 높은 업이 환경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과 관계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거창하게 환경관리를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지금도 환경에 대한 집념과 애착은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기업이 환경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과감한 투자와 환경관리인의 고충과 애로점을 같이 고민해 해결할 때, 환경관리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경비지출을 용수절감과 폐수를 줄여 이익을 창출해 경영에 이바지했을 때, 또한 매년 봄가뭄에 폐수방류수를 재활용, 농업용수로 전환 모내기를 완료하고 농민들이 고마움을 전달할 때 등 수없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기업체 임직원 및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MIND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연합회 이상호 회장과 지역협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환경관련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업무 자체가 환경관련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환경관리인으로써의 자립보다, 법 공부만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스스로 환경보호를 위해 솔선수범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 심지어는 범위를 벗어난 관리를 하고도 법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갖고 환경관리를 하는 기업체나 관리인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복잡하기만 한 환경관련법, 잦은 변경 및 해석의 모호함에 따른 환경경영계획 수립과 방향결정이 혼란스러울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우포늪 정화활동시 높은 파도에 배가 정박하지 못하고 한시간을 허비하고 되돌아 왔을 때, 환경 생태계



삼성SDI(주) 부산사업장 환경안전그룹 김도철 차장

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및 울챙이잡기 대회 때 보트를 타고 저수지를 순회 후 돌아오다 그만 실수로 모여사무관이 저수지에 빠져 옷이 몸에 짝 달라붙는 황당한 사건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난처했던 상황이었죠.

▲환경관리인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요?

△ 기회가 닿는다면 이러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언론매체에 환경관련 칼럼을 연재, 모든 국민들이 환경지킴이이며, 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자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관리인들의 애환과 땀, 눈물이 담긴 "환경관리 실무지침서"를 발간, 후배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환경은 환경관리인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전 풍토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협의회를 이끌고 계신데 연합회 및 지역협의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인은 국가환경관리의 초석이자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연합회는 환경관리인의 대변자 입장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인 보수교육 등을 통해 현장관리인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합회와 지역협의회간 유대관계를 통해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환경관리인증서"를 발급, 국가 환경관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환경관리인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협의회 소속 모

든 환경관리인들이 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협의회에 대한 사랑을 갖어야만 가능하지요.

우리 울산협의회는 딱딱한 이미지의 협의회보다는 환경을 사랑하는 친목회 정도의 부드러운 색깔을 가지고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경조사, 애로점 해결, 기술지원, 정보공유 등 우선적으로 관리인들을 묶을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지인물과의 만남-대한민국환경관리장 금강대장 수상자

삼성SDI(주) 부산사업장 환경안전그룹 김도철 차장

▲삶의 철학과 향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머리에 는 지식을, 가슴에는 이상을, 손에는 근면을' 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정한 장인정신의 환경관리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같은 환경관리인으로서 전국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전문인

으로서 자리메김 하고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 한 때는 3D업종으로의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산업보다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최선봉에서 발전해 가야할 업이 환경산업 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미래이니깐요.

현실에 안주함이 없이 보다 많은 전문지식 습득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환경관리인이 됩시다.

그래서 스스로 떳떳해지고 전문인으로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집시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대한민국환경관리장 시상을 위해 울산에서 올라 온 김도철 차장을 만났다. 지역협의회를 이끌고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가까이에서 대할 기회가 적었던 필자로서는 잔잔한 웃음으로 인터뷰 시간 내내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며, 신선한 신세대적인 사고를 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스스로 내성적이며 온순하다고 말하는 그의 어디서 그러한 적극성 추진력이 나오는지.... 환경을 전공하지도 않은 그가 만들어가는 환경관리는 노력 그 자체였다.

이러한 성실들은 울산광역시장, 환경부장관, 국무총리와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므로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랑스런 삼성인 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

조용하면서도 논리적인 그는 현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젊은 관리인들의 자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나 뿐인 딸을 환경공학과로의 진학을 권할 만큼 환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문제 뿐만 아니라 대인까지 분명하게 제시할 줄 아는 그는 진정한 전문 환경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